

도의회 후반기 의장 송지용 사실상 확정

의회 민주당 의총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1부 의장에 최영일
2부 의장에 황영석 의원



〈후반기 의장〉 송지용 의원
〈후반기 1부 의장〉 최영일 의원
〈후반기 2부 의장〉 황영석 의원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지용(완주1)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39명의 도의원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들 의원들은 오는 26일 본회의 선거를 앞두고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송지용 의원을 의장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전북도의회 사상 최고 경쟁률을 속에 치러진 의총 투표단계 3차 투표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다. 1·2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송 의원은 한완수(임실) 의원을 2대 14로 합궐계 누르고 대표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송지용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책임감이 앞서고 무겁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한 팀이 되는데 앞장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장 대표의원 선출에서는 1부 의장에 단독 입후보한 최영일(순창) 의원이 확정됐으며 5명 후보가 불린 2부 의장은 3차 투표 끝에 황영석(김제1) 의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도의회는 26일 의회 본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29일 폐회한다. /유호상 기자



혁신·벤처가 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토론회-멈춰선 대한민국, 혁신·벤처가 답이다' 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에 고경운·박일·조상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20일, 정읍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6인에 대한 3배수 압축 결과, 나 선거구 고경운 의원, 바 선거구 박일, 조상중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6월 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하고 압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후보 전원 합의에 따라 그동안 배수 압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후보로 나섰던 김재오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읍시의회의 화합을 위해 자진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의 의장 후보의 배수 압축과정은 사실상 인위적 개입을 해왔던 기존 정치관행을 탈피,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청취를 시작하면서 전문기관의 시민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전원 투표까지 실시하여 그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역 사회가 높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 선출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여러 조사 중 전문기관의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당직자와 언론인, 공직자의 여론과 다르지 않았고, 1인 2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전

원 투표에서 1명의 후보만 2표를 얻고 나머지 후보가 4~5표를 고르게 얻은 등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에 아쉽게도 최종 후보로 나설 기회를 얻지 못한 의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며, "정읍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선 관리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6월 29일, 배수 압축된 3인 의원의 정경발표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불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방적 공개, 외교 기본원칙 위반...美 방치 조치 기대"

靑 "편견·선입견으로 왜곡 기본 못 갖춘 부적절 행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존 불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불턴 전 보좌관은 그 조해 혐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러한 부적절 행위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의 이러한 입장문은 전날 미국 NSC에 전달됐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이윤리 윤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청와대 입장에 함께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턴 전 보좌관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한 사실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정상 간 대화 또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협의 과정은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턴이 여러가지 (왜곡)를 했지만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다루는 것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고록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관련돼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이 미국 정부가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참모

들이 직을 수행하면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일어난 일이나 미국 쪽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경위에 대해서는 "정 실장이 그동안 불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였다"며 "정 실장과 주고 받은 이야기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NSC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밝힐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불턴 전 보좌관 주장에 대해서는 "불턴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사실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작년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 당시 상황 (중재)한 화면과 보도를 살펴보면 불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불턴 전 보좌관은 판문점 남북 정상 회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뉴시스

공공기관·공기업 청년취업률 제고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공공부문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박 취업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8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이 감소했

정춘숙 의원, 日 위안부 연구재단 설립 법 발의... 윤미향 의원 동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장으로 내정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연구 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 연구 지속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의원 명단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7시
전주 중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 진흥원
주 관 | (사)전북문화 진흥원
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3-9700